

“최소 경비로 투명경영 실현”

개점 8돌 맞은 부산불교신협 사상호 이사장



“부산불교신협을 찾는 한사람 한사람을 부처님 시봉하듯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도량인 신협의 마음입니다.”

부산불교신협총조합 사상호(64) 이사장의 말은 22일 개점 8주년을 맞이한 부산불교신협이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을 담고 있다.

개점이래 IMF사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 70여 부산 지역 신협 중 10위의 성과를 올린 부산불교신협. 92년 조합원 70명으로 시작한 부산불교신협은 이제 조합원 수 7천명, 자산 360억원으로 성장했다.

사 이사장은 22일 개점 8주년을 맞아 강상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2002년까지 자산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불자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

“부산불교신협을 찾는 고객이 바로 한국불교를 대표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심부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최소한의 경비로 투명한 경영을 이루고 있는 불교신협의 직원은 9명. 사상호 이사장은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단언한다. 보현행, 대원화 등 직원들의 불명을 모두 외워 불러 줄 만큼 직원 사랑이 유별나다. “고객에게 금생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부산불교신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복권을 쌓는 일”이라고 믿는 사 이사장은 조합원수 1만 5천명, 자산 1천억원 조성 목표도 불교발전을 위해 자신이 지을 수 있는 복으로 여길 뿐이다. 개점 초창기부터 이사장직을 맡아온 그는 임기동안 자체 사옥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신협이 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 편의시설을 갖춘 진정한 포교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남북화합·불교교류 힘쓰겠다”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불교대표 월서 스님

남북한 100명씩으로 구성되는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에 불교계 대표로 월서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이 선정됐다. 각계 각층 인물 100명으로 구성된 교차관광단에는 종교계에 4명이 할당, 불교 1명 천주교 1명 개신교 1명 천도교 1명으로 정해졌다. 오는 9월 3일 출발, 6박 7일간 백두산을 비롯 북한지역을 돌아 불 월서스님은 “불교계의 대표로 민족

의 성산 백두산을 가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불교와 천사스님들의 범함하에 배어있는 구원산 도향산 등의 고찰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북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불교 교류에 가일층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apia.com)



북한동포에 담요 전달식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는 23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북한 동포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제14차 지원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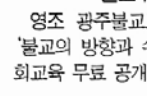
(담요 2,520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내복, 양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2차로 지원할 계획이다. (02)734-7070

31사단 징병 위문법회



현장 대원사 주지는 19일 31사단 호국관음사에서 광주·전남불교신도회와 광주불교승인회, 능인새마을금고 공동주최로 열린 장병위문법회에서 법문했다.

‘불교수행’ 공개강좌



영조 광주불교교육원 원장은 24~26일 ‘불교의 방향과 수행’을 중심으로 불교사회교육 무료 공개강좌를 가졌다.

장애기독교생애 장학금



원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18일 지역내 장애인 및 장애가정 학생 3명을 복지관으로 초청,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베풀어 이들을 격려했다.

태태이기령 천도사경법회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인재를 갖고 10월 19일까지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한 ‘제5회 태태이기령천도사경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02)723-6285

방송대상 우수작품상 불교방송 안희경PD



“숨겨진 세계 전통음악 찾아내 소개”

“불교방송이 들리지 않은 산간 지역에서도 방송후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아 듣는 등 그동안 청취자들이 보 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월 4일 개최되는 제2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연애오라부문에 우수 작품을 수상하는 불교방송 ‘예민의 세계음악 여행’의 안희경PD는 청취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4월 개편때부터 새로 신설된 이 프로그램 맡은 안PD는 청취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을 발굴해 소개하는 신선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PD는 “각 나라의 전통음악속에 그 나라 민족의 삶의 애환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며 “음악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jkim@buddhapia.com)



법화종 ‘평화의 종’ 봉안법회

세계 평화와 7천만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이 북녘땅이 바다로 보이는 전진부대 도라전망대에 봉안됐다.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법흥)은 8월 22일 전진부대 도라전망대에서 ‘평화의 종 봉안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8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법흥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법화종도들의 큰 원력으로 세워진 도라전망대의 범종이 사바세계 가득 울려 남북의 장벽을 넘나들며 평화와 자유의 범종을 전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불교자원봉사단 119봉사단 발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8일 자원봉사연합회 4층 강당에서 ‘제1기 그린오너 119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연합회 스님들과 회원, 구청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그린오너 119봉사단”은 나무와 가로수를 가꾸고 보살피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맑은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평불협 등 남북불교 활성화 모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불교인권위원회, 남순지장회는 2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남북불교 활성화를 위한 전제모임과 정수일씨 출소 환영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평불협 공동회장 법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과 평불협 정인악 이사장과 김도현 상임대표, 신광식 불교연인회회장, 김병철 남순지장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홍수·최기영씨 인간문화재 대목장 지정

대목 전홍수(62·사진 왼쪽), 최기영(55)씨가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간문화재 대목장 74호로 지정받았다. 전씨는 18세에 한식공예분야에 입문. 1955년 대목장 김귀희선생을 만나 기능을 전수받았다. 불심과 전통문화에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건축 불사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한국건축박물관 건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씨 역시 1961년 대목장 김귀희선생문하에 입문한 이후 40여년간 사찰과 궁궐 등 한국고건축의 매를 이어왔다. 그동안 내장사 명부전을 비롯 전국 도처에서 불교건축 책임자로서 활동해 왔다.



금강경 독송회 전국 통합법회 가져



금강경독송회 전국 법당의 불자들이 한자리 모였다. 금강경독송회는 18~19일 양일간 경주 두대마을에서 전국통합철야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전국통합 철야법회는 1년간(금강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7독한 회원들이 지도법사에게 공부를 점검받고, 신행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전국에서 모인 5백여 명의 금강경독송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미륵존여래불 정진,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 금강경 7독, 각 지역법당 회원들의 신행담 발표, 공부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웅 지도법사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라며 일상 속에서 생기는 모든 분별을 떨쳐버리고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는 생활 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이번 법회에서 즉석 모금활동을 벌인데 이어 올해 안에 1천만원의 성금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불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 각각 5백만원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숲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숲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숲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적외선 효과가 운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에서 내뿜는 알파(a)파가 운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 대숲 쿠션의 특징 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숲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제를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생아용, 명상용
· 저매물 : 대나무 숲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숲, 황토염색)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양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주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 2000 부산 연꽃 축제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9월 4일)

구분	사양	가격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쿠션형태	27,000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피라미트형태	35,000
신발 (냄새제거제)		2,000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Website : http://www.daesup.com E-mail : daesup2000@hanmir.com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짙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